

2021서울마라톤이 11월28일 서울 올림픽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2019년 3월17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 10km코스 참가자들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동아DB

“마침내 엘리트 선수들이 달린다”…2021서울마라톤, 28일 국내 첫 오프라인 레이스

〈코로나19 시대〉

SEOUL MARATHON 2021

서울 도심을 달리는 서울마라톤이 오프라인 대회로 돌아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멈춘 지 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초의 오프라인 레이스입니다.

2021서울마라톤 겸 제91회 동아마라톤대회가 11월28일(일) 서울 올림픽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열립니다. 국제엘리트 부문은 해외 선수들의 대한민국 입국이 여의치 않아 케냐 엘도렛에서, 국내엘리트 부문과 마스터스 부문을 서울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서울서 국내 엘리트·마스터스 레이스
국제엘리트 부문은 케냐서 각각 개최

서울 올림픽공원~잠실종합운동장 코스
마스터스 참가신청 8일 오전 10시부터

동호인과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부문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마스터스 부문 참가신청은 8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마스터스 부문 오프라인 대회 참가자는 온라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풀코스 100명, 10km코스 200명 등 300명을 선정합니다. 온라인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오프라인 레이스 참가비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참가 기념품은 레이스워머, 뉴발란스 고급 기능성 싱글렛, 기념메달 등이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레이스 참가 자격 및 방역기준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8면

●신청 : 서울마라톤 홈페이지(www.seoul-marathon.com)
●접수: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국제마라톤’ 검색 후 일대일 채팅 또는 이메일 marathon@donga.com

주최 : 서울특별시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체육회 협찬 : KB금융그룹 samyang new balance POCARI SWEAT KRA 한국마사회 주관 : spo-ex-com 스포엑스컴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웅담 타선 대폭발…두산 “삼성 나와!”



잠실 라이벌의 역대 포스트시즌 6번째 덕아웃 시리즈는 두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두산이 7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LG와 준PO 3차전에서 10-3으로 이겨 시리즈 전적 2승1패로 PO 진출에 성공했다. 3루쪽 응원석에서 승리를 염원한 두산 팬들의 바람대로였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정수빈 싹쓸이 3루타 등 15안타 불꽃
3차전 10-3으로 LG 잡고 업셋 PO행
이영하 4이닝 4K 무실점 데일리 MVP
9일 대구서 삼성과 플레이오프 1차전

‘미러클’의 계절이 돌아왔다. 두산 베어스가 준플레이오프(준PO·3전 2승제)에서 영원한 숙적 LG 트윈스를 꺾고 ‘업셋’에 성공해 삼성 라이온즈의 PO(3전2승제) 상대로 결정됐다.

두산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2021 신한은행 SOL 포스트시즌’ 준PO 3차전에서 10-3으로 이겨 2승 1패로 PO에 올랐다. 두산과 LG의 포스트시즌(PS) 덕아웃 시리즈는 역대 6번째였는데, 두산이 시리즈 4연승(2000년 PO~2013년 PO~2020년 준PO~2021년 준PO)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아울러 와일드카드(WC) 팀의 준PO 업셋은 2018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이어 3년만이다. 두산은 하루 휴식 후 9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과 PO를 치른다. 두산과 삼성의 PS 맞대결은 역대 10번째로, 최다 매치업이다.

준PO 최우수선수(MVP)는 두산 정수빈의 몫이었다. 3경기에서 타율 0.462(13타수 6안타), 5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기자단 전체 72표 중 56표(77.8%)를 휩쓸었다.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흐름은 싱거웠다. 두산은 1회초 리드오프 정수빈의 안타와 폭투로 무사 2루 찬스를 잡았고,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LG도 곧장 반격했다. 1회말 2사 1루에서 채은성-유강남의 연속안타로 균형을 맞췄다.

두산은 2회초부터 2번째 투수 이영하를 곧장 투입했다. LG 타선의 기를 꺾은 뒤 3회초 페르난데스의 2점포로 3-1 리드를 잡았다. LG는 2번째 투수로 1차전 선발이었던 앤드류 수아레즈를 투입했지만 이미 두산의 분위기였다.

두산은 4회초 2사 1·3루 찬스에서 정수빈의 중전적시타로 4-1까지 달아났다. 승부는 5회초 기울었다. 박건우의 볼넷, 김재환의 2루타로 5-1까지 달아났다. 다시 1사 후 연속 볼넷으로 만루. 강승호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후속 박계범의 평범한 직선타구를 LG 3루수 김민성이 놓치며 6-1까지 벌어졌다. 뒤이어 정수빈의 싹쓸이 3타점 3루타가 터졌다. 정수빈은 PS 통산 5호 3루타로 정수근과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페르난데스의 추가 적시타로 스코어 10-1. LG에 15개의 아웃카운트가 남아있었지만 넘어간 흐름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산 2번째 투수 이영하는 4이닝 2안타 3볼넷 4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며 데일리 MVP로 선정됐다. 두산은 리드가 넉넉했음에도 필승조인 홍건희(2이닝 1실점)~이현승(1이닝 무실점)~김강률(1이닝 1실점)을 잇달아 투입하며 LG에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 포스트시즌 관련기사 2·3·4면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